

브리지스톤,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에 친환경 타이어 지원

세계 1 위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이 '2019 브리지스톤 월드 솔라 챌린지' 대회 타이틀 후원사로서 대회에 참가하는 32 개 팀 모두에게 태양열 자동차 전용 타이어를 지원한다.

'브리지스톤 월드 솔라 챌린지'는 호주 대륙에서 격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로, 2019 년 대회는 오는 10 월 13 일에 시작한다. 대회 참가자들은 호주대륙의 북쪽 해안도시인 다윈(Darwin)에서 출발해 대륙의 남쪽 끝인 아델레이드(Adelaide)까지, 총 3000km 의 거리를 오직 태양광 동력만으로 약 5 일간에 걸쳐 종단해야 한다.

브리지스톤은 대회 참가팀에게 브리지스톤의 '에코피아 올로직(ECOPIA with ologic)' 타이어를 지원한다. 에코피아 올로직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에너지 효율 기술인 '올로직'이 적용된 타이어로 태양광 자동차 전용으로 설계됐다. 에코피아 올로직 타이어는 회전저항을 줄이면서도 내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타이어보다 직경이 크고 트레드 폭이 좁아 높은 수준의 연비와 안전성을 확보했다. 큰 직경은 접촉면의 변형을 최소화해 회전저항을 줄이고, 좁은 트레드 폭은 운행 시 공기저항을 줄여 연비를 향상시킨다.

브리지스톤의 월드 솔라 챌린지 대회 후원은 브리지스톤이 오랫동안 전세계에서 추진해온 '이동성, 사람, 환경에의 공헌' 이라는 기업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태양광 자동차 개발을 장려하고, 미래의 친환경 기술을 주도할 젊은 엔지니어들을 지원하며, 태양광이라는 신동력을 이용해 친환경을 구현하겠다는 목표의식이 브리지스톤 월드 솔라 챌린지 대회에 담겨있다. 브리지스톤 그룹은 혁신과 첨단 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하고, 삶을 영위하고, 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